

AI에 밀린 취업, 대학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충청일보 | 승인 2026.03.24 14:01

[교육의 눈] 노기섭 홍익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교수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형 AI의 등장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대학에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면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비교적 명확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졸업생조차도 AI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취업 불안은 점점 심화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취업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학은 더는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필자는 앞으로의 대학 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 방향으로 CES, 즉 Creative, Computing, Ethics, Security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Creative는 기존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는 능력을 넘어,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AI가 정답을 찾는 데 강점이 있다면, 인간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Computing은 단순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문제를 데이터와 알고리즘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를 뜻한다.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해하는 능력은 필수적인 역량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기본 소양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전공을 초월한 교육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thics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AI의 활용이 확대될수록 편향된 결과, 잘못된 판단, 그리고 사회적 책임 문제는 더욱 강조된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의 사용법 방법뿐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윤리적 판단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규범 교육을 넘어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으로 작용하며,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기반이 된다.

마지막으로 Security는 AI 시대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 역량이다. 딥페이크, 개인정보 침해, 자동화된 공격 등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대학은 학생들이 AI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실제 사례 기반의 교육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결국 CES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AI와 경쟁하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창의성, 컴퓨팅 사고, 윤리의식, 그리고 보안 역량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인재가 필요하다. 대학이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때, 우리는 AI에 밀려나는 인재가 아니라 AI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충청일보 webmaster@ccdailynews.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